

보 도 자 료

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207, 8층 (신사동, 성도빌딩)

유바이오로직스 태영진 부장 070-4881-7117

유바이오로직스, 경영진 및 임직원 자신감을 가지고 유상증자 적극 참여

- 경영진 및 최대주주 유상증자 120% 초과 신청 / 우리사주조합 100% 참여 완료
- 유상증자 자금은 신규생산 시설 구축 및 연구개발에 사용 예정

유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진행중인 유상증자 자금은 총 528 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되었으며, 경영진 및 최대주주가 유상증자 배정주식분의 120% 초과 신청과 함께, 직원대상 우리사주조합 배정물량도 100% 참여 완료되었다고 17 일 밝혔다.

금회 유상증자 자금 중 약 400 억원은 제 2 공장 내 완제시설 및 동물세포배양시설의 증설에 사용할 예정이다. 이로써 임상 3 상 중인 여러 백신 제품들의 완제생산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이며, 동물세포 배양시설을 5,000L 급으로 확대하여 코로나-19 백신 등에 대한 위탁생산의 수용능력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.

나머지 자금은 당장 코로나-19 백신(유코박-19)의 국내 임상 및 해외진출을 위한 연구비로 활용하고, 현재 임상 3 상을 진행하고 있는 장티푸스백신 및 유크스 등의 상품화와 해외사업 확대를 위해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.

회사관계자는 “현재 코로나-19 백신의 임상 및 상품화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한편, 그간 진행해 온 코로나-19 진단시약사업에 있어서도 백신의 개발과 병행하여 해외진출 및 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, 지난 11 월 임상 3 상 투여가 종료된 보톡스 제품(유크스)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1 년 사업계획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.”고 밝혔다.

또한 “당사 경영진 및 임직원 모두는 회사 연구개발 능력 및 향후 진행 사업에 대해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유상증자에 적극 동참하게 되었다. 이번 확충되는 유상증자 자금을 통해 회사의 미래가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.”고 말했다.